

베어벡호, 전술·속도·개인이기 '낙제'

중앙 수비 허점 노출... 우루과이에 0-2 완패



25일 오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06-2007 힐스테이트배 V리그 배구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현대 루니가 스파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어벡호가 한국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축구대표팀은 24일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평가전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0-2로 완패했다.

베스트11 중 한국은 7명을 해외파로, 우루과이는 11명 전원을 유럽파로 구성해 정예 멤버로 맞섰지만 우루과이의 한 수 위 경기 운영 능력과 개인기에 밀려 쓸쓸한 패배를 받아들였다. 측면 일변도의 단조로운 공격을 고집했고, 집중력 부족과 느슨한 수비 전환으로 인해 미드필드를 상대에게 내주며 맥이 무너졌다.

측면 공격을 주로 시도했지만 부정확한

크로스와 한 템포 늦은 패스 연결로 중앙에 제대로 볼을 투입하지 못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조재진의 활용도는 그 만큼 떨어졌다.

측면 공격도 풀백 이영표(토트넘)와 원포워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버틴 왼쪽에 치우쳐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못했다. 전반 초반 다소 밀렸던 우루과이가 한국의 공격 패턴에 익숙해지자 패스 연결의 길목에서 볼을 쉽게 쉽게 차단해 낸 것도 그 때문이다. 더구나 크로스마저 세밀하지 못해 공격의 맥이 자주 끊겼다. 후반 들어 우루과이가 수비 위주로 경기를 펼쳐 상대적으로 공격이 활기를 찾는 듯 했지만 견고한 수비벽을 뚫기에는 부족했다.

김대길 축구해설위원은 공격에서 수비 전환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방어벽을 구축하지 못한 것을 실점 원인이자 패인으로 꼽았다. 김 위원은 "공격시에는 4-2-3-1 포메이션에서 2-4-4 또는 2-4-1-3 등으로 숫자 변화는 유연하게 잘 이뤄졌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숫자를 빠르게 늘리지 못해 상대에게 쉽게 공간을 장악당한 게 아쉬웠다"고 밝혔다. 상대의 패스 연결 한 방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며 완벽한 찬스를 허용했던 두 차례 실점 상황을 두고 이권 말았다. 미드필더에서 압박을 하지 못하다 보니 개인기가 좋은 우루과이 선수들에게 쉽게 쉽게 패스 길을 열어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6월 2일 서울서 네덜란드와 친선경기

한국 축구대표팀이 2007 아시아컵 본선을 앞두고 오는 6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와 친선경기를 벌인다. 네덜란드축구협회는 24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www.knfb.nl)를 통해 "네덜란드 대표팀이 6월 2일 한국, 그리고 다음 달 6월 6일 태국과 친선경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가삼현 사무총장도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아직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조건도 거의 합의됐고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기 일정과 상대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현재로서는 평가전 상대로 다른 강팀을 구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 마르코 판 바스텐 감독이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는 FIFA 랭킹 7위(한국 48위)의 강호로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과 16강에서 0-1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순천 매산고 단체전 우승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순천매산고가 제28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순천매산고는 24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고등부 단체전에서 강원도 횡성고를 3-2로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다. 또한 조재민(순천매산고 3)은 남자고등부 개인전에서 2위, 차민혁(순천매산고 2)은 남자고등부 3위를 차지했다.

순천대는 남자대학부 단체전에서 경북 카톨릭대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외에 순천여고는 여자고등부 단체전에서 3위에 올랐으며 광양곡곡중도 중등부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최민하(동신여고 3)는 여고부 단식 준결승전에서 대전여고 임슬기에게 1-2로 아쉽게 패해 3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5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두산과의 시범경기 5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두산의 3번타자 최준석 타석때 1루주자 이종욱이 투수의 견제구에 재빨리 1루로 슬라이딩하며 돌아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타선 침묵... 두산에 1-2 패배

프로야구 시범경기

4연승을 질주하던 KIA 타이거즈가 타선의 침묵으로 두산에 달미를 잡혔다. KIA는 25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상대 선발 다니엘 리오스의 5. 20닝 2피안타, 1볼넷, 3탈삼진 후투에 막혀 1-2로 패했다.

이날 3안타에 그친 KIA 타선은 4회 2사 후 장성호와 서튼의 연속 안타 외에 이렇다 할 공격 찬스 한번 만들어 내지 못했다. KIA는 다행히 0-2로 뒤진 9회말 첫 타자

로 나선 김종국의 좌월 솔로포로 '영봉패'만은 겨우 면했다. KIA 선발 윤석민은 5이닝 동안 6피안타, 2탈삼진, 2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6회부터 마운드를 물려받은 '용병투수' 에서튼은 4이닝 4피안타, 2볼넷, 무실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2선발 후보인 에서튼은 6회에 2피안타, 7회 1피안타, 1볼넷, 9회 1피안타, 1볼넷 등 8회를 제외하곤 매 이닝 타자를 출루시키는 등 여전히 불안한 제구력을 노출했다. 에서튼은 지난 18일 SK전에서도 선발 등

관해 3이닝 1피안타, 5볼넷, 무실점을 기록했으나, 메이닝을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는 등 경기 내용면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5연승을 달리던 SK는 인천서 삼성에 5-6으로 패했고, LG는 조인성의 결승 1점 홈런에 힘입어 현대를 1-0으로 꺾고 6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또 지난 해 투수 트리플 크라운(다승, 방어율, 탈삼진)을 달성한 '괴물' 류현진(한화)과 '전국구 에이스' 손민한(롯데)의 선발 대결로 관심을 모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가 1-1로 맞선 8회 2사 2루에서 터진 박병승의 결승 적시타를 앞세워 2-1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효정 인상·용상 합계 3위

전국주니어 역도선수권

이효정(보성군청)이 제45회 전국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겸 제18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에서 인상, 용상 합계에서 3위에 올랐다. 이효정은 24일 강진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58kg에서 인상 80kg, 용상 100kg, 합계 180kg을 들어올려 3위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 "1승 남았다"

챔피언결정전 2차전 삼성화재 3-0 꺾어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챔피언결정전에서 이틀 연속 '무적함대' 삼성화재를 침몰시켜 2년 연속 우승을 눈앞에 뒀다. '장신군단' 현대캐피탈은 2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프로배구 남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2차전에서 손 루니(20점)의 활약을 앞세워 정규리그 1위 팀 삼성화재를 3-0(25-23, 25-20, 25-22)으로 눌렀다.

전날 1차전을 3-1 승리로 장식한 현대는 적지에서 이틀 연속 승진기를 불러 1승만 보태면 지난 해 통합 우승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정상에 오른다. 특히 현대는 정규리그 2위로 대한항공과 플레이오프를 2전 전승으로 통과한 데 이어 챔피언결정전에서도 두 경기를 모두 따내는 과감한 자세로 우승에 성큼 다가갔다.

반면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삼성은 안방에서 치러진 두 경기를 모두 잃어 겨울리그 열 번째 우승 도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어 열린 여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는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에 3-0(25-20, 25-17, 25-17)으로 완승을 거두며 전날 패배(1-3)를 설욕했다. 한편 남녀 팀은 28일 각각 천안과 수원서 3차전을 벌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인중개사 **광주고시학원** **4월 2일** **찾년도 개강** **주목관리사** **827-0003** **971-0003**

교정직 특채 **360명** **4월 2일** **광주고시학원** **251-7959**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주)AMS교육** **1600-0596**